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저소득층 가족내 상호작용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 자녀들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빈곤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의 발달,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아동기때 빈곤 경험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학업성취 저조, 학교중퇴, 비행 등과 연결된다는 것이다(Astone & McLanahan, 1991; Harris & Marmer, 1996). 이들 연구들은 경제적 압박과 자녀의 부정적 결과를 중재하는 상호작용적 과정으로서 부모역할 및 부모행동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부모역할이나 부모행동은 빈곤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Clark(1983)는 빈곤가정에서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는 부모가 자녀와 친밀한 관계속에서 올바른 훈육을 한 것과 연관된다고 강조하였다.

서구에서는 부모행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교육학이나 가족학 분야에 축적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가정과 학교간 상호연계의 맥락속에서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Epstein(1987)의 가정-학교간 영역중첩모델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Balli, et.al.,1998; 이세용, 1997). Epstein모델에 의하면, 가정과 학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을 서로 공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공유에 대한 인식은 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들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와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는 다양한 접근방법에 의하여 분석되어 왔다. Keith 등(1986), Milne와 Rosenthal(1986)은 숙제점검 및 지도, 교사와의 면담, 사친회 참석 등 구체적인 참여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부모의 참여행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한, Reynolds와 Gill(1994)은 교육참여 행위 뿐아니라 학업성취 기대도 등 자녀교육에 관한 태도를 포함시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소득층 어머니의 경우 학업성취 기대도가 참여행동보다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애정적이며 지지적인 양육방식이 교육참여를 매개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DuBois & Felner, 1994)도 있다. 즉, 온정적 가정의 자녀들은 그들 부모가 자녀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므로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특별한 부모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참여-학업성취 관계가 아시아 지역과 서구 지역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Dornbusch, et. al., 1987)도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방식, 자녀교육 참여행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는 것은 의미있다 하겠다.

국내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아직 일천한 실정이다. 최근들어, 저소득층의 부모-자녀관계 및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어머니가 행하는 부정적 측면의 양육행동(김영희, 1996)이나 교육열(한국교육개발원, 1993) 등이 부분적으로 파악된 정도이다. 또, 중·상류층 자녀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양상을 기술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단지, 이세용(1996)이 자녀교육에 관한 부모의 참여행동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김영희(2001)가 어머니의 교육참여 활동과 아동기 자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세용은 중류층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자녀교육 참여실태를 분석하는데 그쳤다. 김영희는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어머니만의 보고로 참여행동 및 자녀의 학교 적응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측면의 자료수집과 학업성적에 관한 정확도에서 문제점이 따른다.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적 현상을 다루는 연구에 있어서는 복수 참여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한쪽의 반응을 다른쪽의 반응에 비추어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Olson(1985)은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어머니 등 다측면적인 보고에 의해 어머니의 양육방식, 교육참여 정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분석이라는 학문적인 중요성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우리 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어떤 계층보다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사교육의 비중이 큰 우리 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은 자녀교육비 지출 부담에 따른 경제적 압박이 크리라 짐작되며, 실제 빈곤층 현장조사에 의해서도 실직가정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가계지출은 자녀교육비로 나타나고 있다(중앙일보, 2001, 5). 더욱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심화는 가족문제 및 청소년 문제, 그 중에서도 단기간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또는 예방의 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한 구조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청소년기 자녀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교육참여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 변수들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통제 변수로 청소년의 성이나 어머니의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 청소년/어머니 특성과 어머니의 학업성취 기대도를 고려할 수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의 중요성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부모의 역할과 행동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재하는 역할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가정에서 행하는 행동(in home activities)을 분석한 연구들은 부모라는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나 행동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업에 대한 참여행동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Dave, 1963; Wolf, 1966; Stevenson & Baker, 1987에서 재인용), 초등학교 입학 이후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또는 참여의 결과는 어떠한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과 학교라는 두 제도간 상호연계의 맥락 속에서 부모의 교육참여를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적 틀로 Epstein(1987)의 가정-학교간 영역 중첩모델(the model of overlapping spheres of influence between families and schools)을 들고 있다(Balli, et.al., 1998; 이세용, 1997).

이 관점에 따르면, 가정과 학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을 서로 공유한다. 실제로,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적 활동들은 부모와 교사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이세용, 1997). 다시 말하여 Epstein의 모델은 부모-학교간 공유목표와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예측을 한다는 것

이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참여 효과가 많은 연구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80년대 말부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Balli, et. al.,1998; Keith,et. al., 1986; Stevenson & Baker, 1987). 한가지 예로 빈곤층 자녀의 지적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미국의 보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은 자녀교육에 부모가 참여하는 단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손꼽힌다.

Epstein모델에 의하면 자녀의 숙제를 점검하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교사간 공유활동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직접적이며 가시적 도움이 아니더라도 부담이 덜되고 시간을 덜 소비하는 즉,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일, 교육과정 이수를 상의하며 교재를 선택하는 일, 교사와 면담을 나누거나 학교행사에 참여 하는 일 등도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lli, et. al., 1998).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녀교육 참여행위를 세부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며, 대부분 아동기 자녀의 생활지도, 학습지도 문항에 대해 실태파악을 한 정도이다(박순자·이은희, 1999). 예를 들어, 한국교육개발원(1993)에서는 근로층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습지도 및 교육열을 파악한 바 있다. 근로층 부모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지만 학습지도에 적극적으로 깊이 관여하지 않거나 또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이세용(1997)은 청소년기 자녀교육에 관한 참여활동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중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희(2001)가 저소득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기 자녀의 교육참여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자녀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대체로 그리 높지 않았으며, 참여유형에 따라 어머니들의 참여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녀의 여가활동보다는 학습활동에 더 빈번하게 참여하였으나 많은 수의 어머니들이 매월 한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학교를 방문하거나 직접적으로 교사와 의사소통하는 정도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여러 실증연구들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가 학습활동에 관해 더욱 관심을 보이거나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Bronstein, et al., 199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위한 교육참여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겠다.

2.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자녀교육 참여의 매개역할

청소년의 긍정적이며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이란 높은 학업성취,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동기와 긍정적 수업태도, 원활한 교사와의 관계 등을 일컫는다. 그동안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하면서 여러 실증연구들은 대부분이 학업성적을 다루었으나 (Dornbusch, et al., 1987; Reynolds & Gill, 1994), 최근들어 성적이외의 다른지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신나나·도현심, 2000; DuBois, et al, 1994; Paulson, 1996). Astone과 McLanahan(1991)은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더불어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부모참여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바 있으며, 두 변수 간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에서 수행된 체계적인 실증연구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변수에 관한 고찰을 주로 서구의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들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얻을수 있는 시사점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청소년/어머니 특성, 어머니의 학업성취 기대도, 온정적 양육방식 그리고 자녀교육 참여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교육참여가 온정적 양육방식과 학교생활 적응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Steinberg 등(1992)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면서 두 변수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보다는 자녀교육에 관한 참여수준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참여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으로 다음의 선행연구들에 의해 간접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과 참여행위간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Aunola & Nurmi, 2000; DuBois, et al., 1994). 즉,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애정적이며 지지적인 양육방식을 보일 때 교육적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참여행동이 나타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가 숙제 지도등 빈번한 학업관련 행동을 보이거나 교사와 자주 면담을 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참여가 나타날 때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Bogensneider, 1997; Keith, et. al., 1986). 따라서 앞의 두가지 측면의 연구결과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조명해보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이 자녀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고 참여행동은 결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성별에 따른 직접효과가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2001),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성적이 높게 나타난 결과(Muller, 1998; Paulson, 1996)가 있다. 그러나 Keith 등(1986)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은 부모참여를 통해 학업성취에 간접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며, 교사와 더 많이 접촉하고 자녀의 학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적시에 행할 수 있다고 한다(Stevenson & Baker, 1996). Crouter 등(1990)은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학습지도나 감독에 소홀하게 되며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

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Moorehouse, 1991). 또, 학업성취 기대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강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Astone & McLanahan, 1991; Reynolds & Gill, 1994)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자녀교육 참여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밀접한 관계를 염두에 둘 때, 청소년/어머니 특성, 학업성취 기대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외에 교육 참여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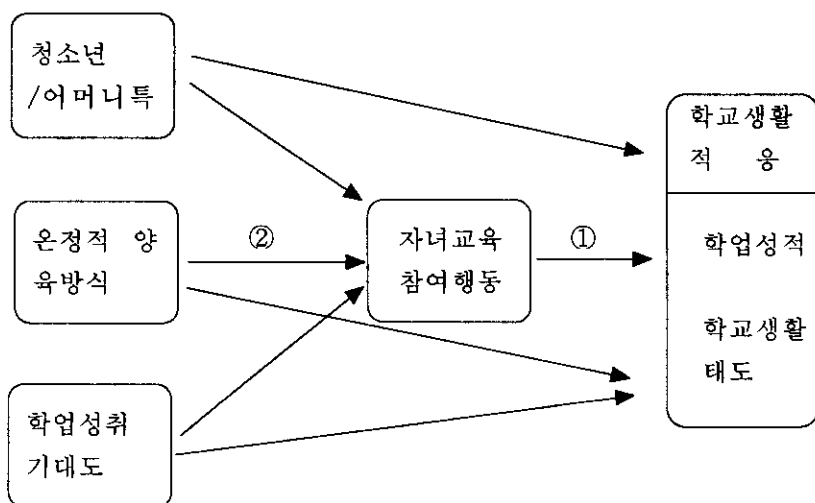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저소득층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교육 참여의 경향은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2.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변수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특히, 어머니의 교육참여는 긍정적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1>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표집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이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탐색한다는 본 연구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중학생으로 제한하였다. 먼저, 측정 도구들의 질문 문항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가양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1곳의 공부방에 다니는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조사를 위하여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표집을 두단계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첫 단계에서는, 목적적 편의표집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알려진 동네근처의 중학교를 선정하였다. 서울시 신림동 위치 중학교 1곳, 경기도 안성시 중학교 1곳 및 평택시 중학교 1곳을 대상장소로 선정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선정된 세 군데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남녀 비율 및 학년을 고려하여 대상 학생을 정하였다. 학생들을 위한 학생용 질문지는 각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배포한 후 응답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며, 어머니용 질문지는 어머니로 하여금 가정에서 완성하게 하여 학생들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자료수집은 2001년 6월 초순부터 7월 하순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350부를 배부하여 자녀와 어머니 관계의 일치된 설문지를 선택하고 부실기재를 제외한 후 305부를 사용하였다. 그 중 전체 가족 구성원의 월수입¹⁾이

1) 저소득층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01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이 약 258만원이고 표준편차가 약 5.1만원정도이다. 따라서 표본이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고 할 때 전체 표본의 하부 2.5% 미만이 약 248만원 정도의 가구소득을 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2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으

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설문지 어머니-학생 쌍의 171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EXCEL을 이용하여 입력처리한 후,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이 지닌 통계적 정보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및 주요변수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 자녀교육 참여활동,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3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 태도 및 교육참여에 관한 문항들은 Aunola 등(2000)의 자녀양육 및 교육 태도, Steinberg 등(1992)의 Parental involvement in schooling 척도, 김영희(2001)의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13문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가족 학 전공자 2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학교생활 적응 중 학교생활 태도 문항은 신나나, 도현심(2000)의 학교생활 적응척도(20문항)에 기초하여 수업시간 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온정적인 양육방식의 신뢰도는 $\alpha=0.74$ 이며, 자녀교육 참여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alpha=0.68$ 이다. 또,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생활 태도에 관한 신뢰도 계수는 $\alpha=0.63$ 이다.

청소년/어머니 특성, 온정적 양육방식 및 학업성취 기대도 그리고 자녀교육 참여사이의 관계와 이들 변수들의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을 경로분석에 의하여 파악하였다. 종속변수는 학교성적과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생활 태도 두 가지로 측정되었다. 변수 구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II-1>에 제시되었다.

로 정의하였다.

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 청소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III-2>와 같다. 전체 청소년 171명 중 39.7%가 서울지역, 그리고 60.3%가 경기도 지역의 학생으로, 중학교 1학년생 또는 2학년생이며 평균연령이 12.11세(표준편차=0.62)이다. 여학생(60.8%)이 남학생(39.2%)보다 더 많으며, 부모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편모가족의 자녀가 8.9%에 이른다.

대상 어머니의 연령은 최저 31세부터 최고 56세까지이며, 평균 39.4세로 40대가 가장 많아 56.4%에 달한다.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이 55.0%를 차지한다. 직장일을 하는 경우 전일제가 62.8%, 반일제가 37.2%이며, 파출부, 식당일을 하는 등 단순 근로직이 대부분이고 다음으로 외판, 또는 가게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수입은 가족원 모두의 월수입을 합한 것으로 181만~200만원이 26.9%, 100만원 이하가 17.5%순이다.

<표 III-1> 주요변수의 구성

변 수		정 의 및 구 성	범위 (평균)	표준 편차
청소년/ 어머니 특성	청소년의 성	딸(0), 아들(1)		
	어머니의 학력	무학(1)- 대졸(5)	1-5 (3.70)	0.79
	취업여부	직업 없음(0), 있음(1)		
학업성취 기대도		진학 기대도 1문항 국졸(1)- 대학원 이상(4)	1-4 (3.02)	0.70
은정적 양육방식		애정표시, 관심갖고 격려해주기 등 2문항을 더한 값 전혀 그렇지않다(1)- 늘 그렇다(4)	2-8 (7.13)	1.25
자녀교육 참여행동		학업에 대한 대화, 숙제지도, 교사와 상담등 6문항의 점수를 더한 값 거의 없음(1)-1주일에 1번이상(4)	6-21 (12.54)	3.00
학교 생활 적응	학교성적	국어, 영어와 수학성적 3문항의 점수를 더한 값 10-20점(1)-90-100점(9)	6-27 (18.12)	5.59
	학교생활 태도	수업시간 태도 8문항, 교사와 관계 8문항 을 합하여 총 16문항 점수를 더한 값 전혀 그렇지않다(1)-늘 그렇다(4)	27-51 (40.30)	4.42

<표 III-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71)

변 수	구 분	빈 도	비 율(%)
지 역	서울	68	39.7
	경기도	103	60.3
성	남학생	67	39.2
	여학생	104	60.8
가족구조	편부모가족	15	8.9
	부부가족	155	91.2
어머니 연령	30대	72	42.4
	40대	96	56.4
	50대	2	1.2
어머니 학력	국졸	9	5.4
	중졸	46	27.5
	고졸	100	59.9
	전문대졸 이상	12	7.2
어머니 직업	없음	77	45.0
	있음	94	55.0
월수입	100만원 이하	30	17.5
	101-120만원	27	15.8
	121-140만원	22	12.9
	141-160만원	21	12.3
	161-180만원	25	14.6
	181-200만원	46	26.9

IV. 결과 및 해석

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의 정도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행동은 학교공부 및 성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지, 진학, 진로에 관해 대화하는지, 숙제를 도와준 경험이 있는지, 자녀와 학습교재를 함께 골라 보았는지, 그리고 교사와 의사소통을 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IV-1>에 의하면 응답자의 대부분(71.0%)이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 자녀와 학업에 관하여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학 및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은 이보다 빈도수가 적게 나타나 약 1/3가량의 어머니들이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이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숙제 참여의 경우 앞에서 진술한 자녀와의 대화정도와는 상이한 분포를 보여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 참여한 어머니가 11.7%인 반면 이런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없음' 어머니가 26.9%였다. 또,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책이나 교재를 골라본 경험은 '한 달에 한두번 이상'이 26.9%, '거의 없다'는 14.6%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학교공부나 성적에 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이에 관한 대화를 자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기적으로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고 지도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년동안 학교를 방문해 한번 이상 담임교사와 면담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43.9%, 체육대회, 학부모 모임 등 학교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 어머니는 38.6%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교사와 의사소통이나 학교행사 참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어머니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빈곤층 어머니의 약 13%만이 자녀의 학교방문을 전혀하지 않았다는 서구의 조사결과(Reynolds & Gill, 1994)보다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V-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행동

(단위:%)

항 목	거의 없음	1학기에 1-2번 정도	1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번이상
학교공부에 관한 대화	5.3	23.7	48.5	22.5
진학·진로에 관한 대화	12.3	49.1	31.6	7.0
숙제나 공부를 도와준 경험	26.9	61.4	9.9	1.8
책, 교재를 함께 골라본 경험	14.6	58.5	24.0	2.9

항 목	지난 한해동안			
	없음	1번	2번	3번 이상
학교방문해 교사와 면담한 경험	56.1	25.7	8.8	9.4
학교행사에 참석한 경험	61.4	23.4	11.1	4.1

2.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경로모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학업성적과 학교생활 태도로 구분하여 관련변수들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어머니의 교육수준($r=0.24$), 학업성취 기대도($r=0.37$), 온정적

양육방식($r=0.25$) 및 교육참여($r=0.34$)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었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태도는 어머니의 취업상태($r=-0.19$)와 부정적 관련이 있으며, 온정적 방식($r=0.21$), 교육참여($r=0.25$)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변수들의 상관은 0.5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생각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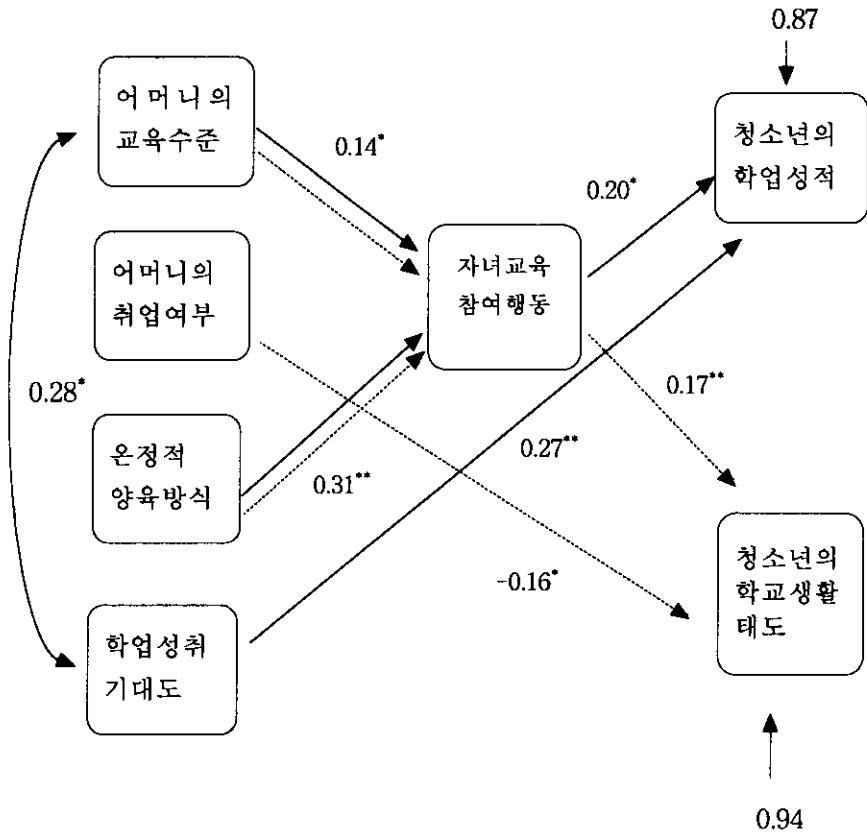
<표 IV-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1) 자녀의 성	1.00							
2) 어머니의 취업 여부	-0.04	1.00						
3) 어머니의 교육수준	0.07	-0.03	1.00					
4) 학업 성취 기대도	0.01	-0.00	0.28**	1.00				
5) 온정적 방식	0.14	-0.06	0.12	0.27**	1.00			
6) 교육참여 행동	0.14	-0.04	0.22**	0.23**	0.37**	1.00		
7) 학업성적	0.01	-0.14	0.24**	0.37**	0.25**	0.34**	1.00	
8) 학교생활 태도	0.03	-0.19*	0.06	0.10	0.21**	0.25**	0.25**	1.00

경로모형의 추정은 청소년/어머니 특성요인-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청소년/어머니 특성요인-자녀교육 참여행동, 자녀교육 참여행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 영향 분석에 있어 교육참여-학교생활 적응을 먼저 조명한 후, 청소년/어머니 특성요인-교육참여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II-1>의 연구모형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두 종

속변수에 대하여 경로분석 결과, 직접 또는 간접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 변수들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포함한 결과는 <그림 IV-1>와 같다.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외부화살표는 잔차효과를 나타내며, $\sqrt{1-R^2}$ 으로 계산됨.

* : $p < 0.05$

** : $p < 0.01$

1)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대한 경로분석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중 먼저 학업성적과 관련변수들의 인과적 경로를 규명하고자 <연구문제 2>를 검증하였다.

<그림 IV-1>를 살펴보면, 여러 독립변수 중에서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행동은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참여행위는 학업성적에 정적 영향($\beta=0.20$)을 미쳐,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관한 참여행동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구체적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참여와 청소년의 학업성취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선행연구들(Bogensneider, 1997; Keith et. al., 1986; Moorehouse, 1991)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겠다.

또한 저소득층 어머니의 학업성취 기대도는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0.27$). 즉, 어머니가 자녀의 진학에 대한 기대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 참여행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3>와 같다.

<표 IV-3>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변수	자녀교육 참여행동		학업성적	
	b	β	b	β
자녀의 성	0.60	0.10	0.51	0.04
어머니 교육수준	0.54	0.14*	0.70	0.10
어머니 취업여부 (직업있을 때 = 1)	0.00	0.01	-1.15	-0.10
학업성취 기대도	0.42	0.10	2.10	0.27**
온정적 양육방식	0.73	0.31**	0.42	0.10
자녀교육 참여행동			0.37	0.20*
R2	0.18		0.23	

* : $p < 0.05$ ** : $p < 0.01$

<표 IV-3>의 왼쪽 회귀식에 의하면 저소득층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자녀교육 참여행동에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다($\beta=0.14$).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참여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수준이 참여행동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관해 참여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 이는 결국 자녀의 학업성적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자녀교육 참여행동 또는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어떠한 관계도 보이지 않았다.

저소득층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약하게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나($\beta=0.10$),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온정적 양육방식은 자녀교육 참여행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beta=0.31$)을 미쳐, 교육참여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친밀하고 애정적인 양육방식은 자녀교육에 대한 참여행동 수준을 높이고, 이 높은 수준의 참여행동은 결국 학업성적을 진보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중심적 연구문제를 증명하는 것으로, 서구의 선행연구 결과(DuBois & Felner, 1994; Steinberg, et al., 1992)와도 일치한다 하겠다. <표 IV-3>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전체변량의 23%를 설명한다.

<표 IV-4> 학업성적 관련변수들의 인과적 효과

독립변수	상관관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적 효과
어머니 교육수준	0.24**		0.03	0.03
온정적 양육방식	0.25**		0.06	0.06
학업성취 기대도	0.37**	0.27**		0.27**
자녀교육 참여행동	0.34**	0.20*		0.20*

* : $p < 0.05$

** : $p < 0.01$

<표 IV-4>에서 청소년의 학업성적 관련변수들의 총 인과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합하여 총 인과적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관하여 저소득층 어머니의 학업성취 기대도 및 자녀교육에 관한 참여행동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 기대도와 자녀교육 참여행동의 직접적 영향이 컸기 때문에 간접적 영향까지 포함하여 총인과적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학업성취 기대도와 자녀교육 참여행동은 다른 어떤 변수보다 영향력이 큰 변수들이다.

2) 청소년의 학교생활 태도에 대한 경로분석

두 번째 종속변수 학교생활 태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IV-5> 참조). 학업성적과 마찬가지로 자녀교육 참여행동-학교생활 태도를 먼저 조명한 후, 청소년/어머니특성요인-자녀교육 참여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IV-5> 청소년의 학교생활 태도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변 수	자녀교육 참여행동		학교생활 태도	
	b	β	b	β
자녀의 성	0.60	0.10	0.00	-0.01
어머니 교육수준	0.54	0.14*	0.00	-0.00
어머니 취업여부 (직업있을 때 = 1)	0.00	0.01	-1.39	-0.16*
학업성취 기대도	0.42	0.10	0.12	0.02
온정적 양육방식	0.73	0.31**	0.46	0.13
자녀교육 참여행동			0.26	0.17*
R2	0.18		0.10	

* : $p < 0.05$ **: $p < 0.01$

<표 IV-5>에 의하면 자녀교육에 관한 참여행동($\beta=0.17$)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참여행동을 더 자주 할수록 청소년들은 더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취업여부는 학교생활 태도에 부정적 영향($\beta=-0.16$)을 미쳐, 취업 어머니보다 직업이 없는 어머니가 있는 청소년 자녀들은 더 긍정적 수준의 학교생활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편, <표 IV-6>의 오른쪽 회귀식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온정적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녀교육 참여행동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할때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온정적 양육방식은 교육참여를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0.14$) 및 온정적 양육방식($\beta=0.31$)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교육 참여행동 수준을 높이고, 이 높은 수준의 참여행동은 결국 더 긍정적이며 원활한 학교생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전체변량의 10%를 설명한다.

<표 IV-6> 학교생활 태도 관련변수들의 인과적 효과

독립변수	상관관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인과적 효과
어머니 교육수준	0.06		0.02	0.02
온정적 양육방식	0.21**		0.05	0.05
취업 여부	-0.19*	-0.16*		-0.16*
자녀교육 참여행동	0.25**	0.17*		0.17*

* : $p < 0.05$

** : $p < 0.01$

<표 IV-6>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 태도에 대한 총인과적 효과를 제시하였는데, 학업성적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 그리고 간접영향에 의한 온정적 양육방식 순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관한 참여행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청소년기 자녀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탐색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참여행동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 변수들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어머니와 중학생 자녀 171쌍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주요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관한 참여행동을 개념화하였는데, 저소득층 어머니들이 중학생 자녀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는 대체로 그리 높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참여행동별로는 참여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참여행동별로 참여수준을 살펴보면, 학교공부나 학업성적에 관한 관심이 높아서 이에 관한 대화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기적으로 자녀와 함께 교재를 골라본다거나(총 응답자의 26.9%), 숙제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행동은(총 응답자의 11.7%) 저조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와 면담한 경험이나 학교행사에 참석한 경험이 전혀 없는 어머니들의 비율도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도는 아직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 자녀의 건전한 발달 및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 참여수준을 높일 여지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가정과 학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

시할 수 있다. 우선, 가정의 측면에서 참여 정도가 낮은 어머니들에게 자녀교육 참여의 성격 및 효과를 이해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머니들이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학습진도에 따른 참고서나 교재를 함께 선택할 수 있으며 방과후 정기적으로 숙제를 점검, 지도할 수 있고, 담임교사와 접촉을 통해 협조관계를 이루거나 자원봉사의 역할로 또는 학교모임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녀교육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사회교육 기관을 통하여 저소득층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간 상호관심에서 출발하여 부모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학생과 학부모의 시각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전제로 한 학교행사 개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평일에 치러지는 학부모 참관수업을 일요일로 바꾸어 취업모들도 일요일에 학교방문할 기회가 주어지는 부모-학교간 거리 좁히는 방안(중앙일보, 2001, 4)의 모색도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어머니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학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미래 학력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M=3.02$, $SD=0.70$, $Range=1-4$).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지적·사회적 기능이 커진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속에서 저소득층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빈곤의 원인이 낮은 학력수준이라고 믿고 있으며, 자녀들이 자신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높은 학력을 획득하는 길뿐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도는 자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원이나 기회가 부족한 가정

형편에서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더욱 더 중대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영희, 2001).

셋째, 저소득층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학교생활 태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청소년의 학업성적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녀의 학업성적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서구와 우리나라 모두 이론이나 선행연구결과에 있어 그 견해가 일치되고 있지 않다.

서구의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취업모는 자녀관련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감소되고 그 결과 자녀의 학업성취가 저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Crouter et. al., 1990; Milne & Rosenthal, 1986). 그러나 Moorehouse(1991)는 모-자녀간 빈번한 공유활동이 있으면 이는 어머니가 하는 직장일의 부정적 측면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취업모 자녀가 비취업모 자녀와 유사한 정도로 높은 학업 유능성을 나타낸다고 강조하여 일관된 견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취업이 부모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결과도 상반된 두가지 주장으로 나누어진다(김영희, 1996).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취업은 과중한 역할부담을 가져와 자녀를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양육행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모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취업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직업을 가져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다면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감소되어 부모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서상태,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이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저소득층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은 참여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에 의하면, 먼저, 어머니의 교육참여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이 올바르게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에도 부모

참여의 중요성이 입증된다. 청소년기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교육 참여 행위 중 서구의 연구에서는, 특히, 숙제감독 및 지도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숙제를 함께 도와주는 일은 학부모와 교사가 공동 목표하에 함께 할 수 있는 학업활동(joint activity)으로, Balli 등(1998)은 부모의 숙제지도와 중학생 자녀의 수학 성적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Keith 등(1986)은 숙제를 완성하라고 또는 TV 시청시간을 줄이라고 격려하는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행동이 자녀가 방과후 보내는 실제 숙제시간 및 TV시청시간에 관련되고, 또 숙제시간은 학업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TV시청시간은 학업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가 집에서 해야할 숙제가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하며 얼마나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등 부모가 정기적으로 숙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중학생이 되며 교과목 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숙제물도 다양해지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다면 숙제활동을 공유하는 부모의 촉진자 역할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물론 일반적으로 시간부족, 지식 불충분 등의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 저소득층 부모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직장스케줄과 자녀의 방과후 학습시간을 조정해 본다면, 가족구성원 공동으로 숙제지도에 기여하는(multiple socialization agents) 예를 들어, 수학은 아버지가, 영어는 형이 도와주는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도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저소득층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은 교육참여에 유의한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 Steinberg(1992) 등의 연구에서도 권위있는 양육방식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지향적 행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Heyns(1978)는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효과적인 면을 들자면 교사와 잦은 접촉이나 숙제 도와주기,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자녀의 학업에 동원되는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

라고 까지 언급하였다.

따라서 앞의 두가지 결과를 고려할 때 저소득층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은 교육참여를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정적 양육방식 가정의 자녀는 부모가 자녀교육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이며 친밀할 때 교육 참여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위적이며 비애정적인 어머니가 강하게 교육참여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오히려 이롭기 보다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부모가 어떻게 교육참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또는 어느정도 하느냐 만큼 중요하다 하겠다. 이번 연구 결과는 중학교에서도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부모참여를 장려하는 개입에 대하여 경험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본 연구에서 경로분석 모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경험적 근거에 입각하여 변수간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횡단면 자료로 이를 통해 나온 변수들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데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다. 또한 경로모형의 성격상 변수간 관계를 일방적 관계로서 설명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부모참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으나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의 분석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금까지 부모의 교육참여와 자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아동기 자녀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전기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교육참여의 중요성을 밝혔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부모 교육참여 성격의 변화 및 그 효과에 대해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연령층간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족의 가족내 상호작용과 청소년의 적응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실용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지금까지 가족학 연구에서 주로 연구대상이 되어온 중류가족 이외에 저소득층 가족을 파악, 분석하여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적 자료를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하나의 종합적 분석 틀 안에서 분석해 봄으로서 관련변수들간 관계 파악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측정한 학교생활 적응 변수와 어머니의 교육참여 변수는 자녀의 지속적인 발달상황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종단적 자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업관련 적응에 관련된 부모의 참여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해 볼 수 있으며, 어머니들이 적절하게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어머니들을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교육 부실로 인한 사교육비 과다지출이라는 우리사회 현실에서 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한 연구는 가정환경의 차이로 인한 교육적 기회의 불평등을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참여를 장려하는 제도 뿐아니라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서 아버지 참여유도 등 포괄적인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론적 근거가 제공된다.

참고문헌

- 김순옥(1992).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김영희(200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와 자녀의 학교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9(1), 179-190.
- 김영희 · 김운주 · 박경옥(2000).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동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49-169.
- 박미령(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하우.
- 박순자 · 이은희(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10(1), 7-19.
- 신나나 · 도현심(200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99-113.
- 어주경 · 정문자(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2), 21-40.
- 이세용(1997). 아버지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 31집, 595-623.
- 한국교육개발원(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93년 연구보고, 248-286.

- Abell, E. & Gecas, V.(1996). Poverty, parental distres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Family Perspective*, 30(3), 323-335.
- Astone, N. M. & McLanahan, S. (1991). Family st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309-320.
- Aunola, K., Stattin, H. & Nurmi J. (2000).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Journal of Adolescence*, 23, 205-222.
- Baker, D. P. & Stevenson, D. L. (1986). Mothers' strategies for children's school achievement: Managing the transition to high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59, 156-166.
- Balli, S., Demo, D. H. & Wedman, J. F.(1998). Family involvement with children's homework: An intervention in the middle grades. *Family Relations*, 47, 149-157.
- Bogenschneider, K.(1997). Parental involvement in adolescent schooling: A Proximal process with transcontextual valid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718-733.
- Bronstein, P., Clauson, J., & Stoll, M.(1993). Parenting behavior & children's social, psychological, & academic adjustment in diverse family structures. *Family Relations*, 42, 268-276.
- Crouter, A. C., MacDermind, S. M. & Perry-Jenkins, M.(1990). Parenting monite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in dual- and si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49-657.
- Dornbusch, S. M., Ritter, P., Liederman, R., Roberts, D. &

- Fraleigh, M.(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Epstein, J. L.(1987). *Effects on student achievement of teacher's practices of parental involvement*. In S. Silvern(Ed.), Literacy through family, community and school interaction. Greenwich, CT: JAI Press.
- Harris, K. M. & Marmer, J. K.(1996). Poverty, parental involvement &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7(5), 614-640.
- Keith, T. Z., Reimers, T. & Fehrmann. P. (1986). Parental involvement, homework and TVtime : on high school achi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5), 373-380,
- Milne, A., Myers, D. & Rosenthal, A.(1986). Single parents, working mother and educational achivement of school children. *Sociology of Education*, 59, 125-139.
- Moorehouse, M. J.(1991). Linking maternal employment patterns to mother-child activities and children's schoo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295-303.
- Muller, C.(1998). Gender differences in parental involvement and adolescents' mathematics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71, 336-356.

- Posner, J. K. & Vandell, D. L.(1994). Low-income children's after-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Reynolds, A. & Gill, S.(1994). The role of parental perspective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inner-city black children.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3(6), 671-694.
- Rumberger, R. W., Ghatak, R., Poulos, G., Ritter, P. L. & Dornbusch, S. M.(1990). Family influences on dropout behavior in one California high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63, 283-299.
- Steinberg, L., Lamborn, S. D. & Dornbusch, S. M.(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63, 1266-1281.
- Stevenson, D. L. & Baker, D. P.(1987). The family- school relation and the child'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348-1357.

<부록>

어머니용 설문지

어머님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 어머니가 자녀들과 평소 서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느낌으로 생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응답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응답하시는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각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로서 사용되지 못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있게 응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국립 한경대학교 생활관리학과

조교수 김영희

학생의 이름 _____

_____중학교 _____학년 _____반

- ♣ 다음은 어머니께서 평소 자녀와 어떻게 지내는지를 진술한 문장입니다. 어머니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해주시시오.(설문지를 가져온 중학생 자녀를 옆두에 두고 답해주시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가끔 그렇다	늘 그렇다
1. 나는 아이가 방과 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누구와 있는지 안다.				
2.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장한일을 했을때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준다.				
3. 나는 아이가 외출시 몇시경에 집에 올 것인지 알고 있다.				
4. 나는 요즘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알고 있다. (지각,결석여부 등)				
5. 나는 아이의 학교 성적이 오를 때 칭찬해 준다.				
6. 나는 아이의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즐겁다.				
7. 나는 아이의 학교공부나 숙제를 봐주는 것이 즐겁다..				
8. 나는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 받는 것이 후일 직장을 구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한해동안	없음	1번	2번	3번 이상
9. 학교를 방문해서 담임교사와 면담한 경험이 있다.				
10. 전화로 담임교사와 상담한 경험이 있다.				
11. 학교행사(학부모 회의, 바자 등)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12. 학교 일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거의 없음	가끔	자주	거의 매일
13. TV시청시간을 줄이라고 통제한 경험이 있다.				
14.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나 책을 사기 위해 함께 서점을 찾은 적이 있다.				
15. 학교 공부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어 최근 성적을 알고 있다.				
16. 운동(공원산책, 배트민톤 등)을 함께 한 경험이 있다.				
17. 고교 진학이나 장래 진로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눈다.				
18. 숙제나 공부를 도와준 경험이 있다.				
19. 노래방을 가는 등 오락활동을 함께 한 경험이 있다.				
20. 컴퓨터를 자녀와 함께 한 경험이 있다.				
21. 함께 비디오를 골라 감상한 경험이 있다.				

♣. 어머니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세요.

1. 어머니는 현재 자녀가 받고 있는 교육(학교 수업 및 학교생활)의 질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대체로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2. 어머니는 자녀가 학업을 어느 정도 맞추기를 원하십니까?

- ①고등학교 졸업 ②전문대 졸업
③대학교 졸업 ④대학원 졸업 이상

♣ 어머니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해당 번호에 V표를 하거나 난에 적어주십시오.

1. 어머니의 연령을 적어주십시오.

만 세

2.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어떻습니까?

- ①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중학교 졸업
④고등학교 졸업 ⑤전문대 또는 대학교 졸업

3. 어머니의 결혼 상태는?

- ①초혼 ②재혼 ③이혼 또는 별거 ④사별

4. 귀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의 수입을 더하여 주십시오.

- ①100만원 이하 ②101~120만원
③121~140만원 ④141~160만원
⑤161~180만원 ⑥181~200만원
⑦201~220만원 ⑧221만원 이상

6.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7. 만약 직업이 있다면 반일제 또는 전일제입니까?

- ①반일제 ②전일제

8. 또, 어떤 직업입니까?

직업	표시(V)
1. 가정주부	
2. 환경미화원, 파출부, 일일노동자, 행상, 가내부업	
3. 서비스직 종사자(상점, 음식점, 미장원, 이발소), 공장생산직	
4. 가게 운영, 일반판매종사자	
5. 사무직 종사자(경리, 타자원, 유치원보모)	
6.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7. 전문직	
8. 기타	

9.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 다음의 문제로 인하여 지난 1년간 어머니가 겪은 괴로움의 정도를 표시(V)해 주십시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괴롭다	자주 괴롭다	매우 괴롭다
1. 매달 나오는 공과금이나 기타 청구서를 지불하기 어려워서				
2.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학원 보내기, 교재구입 등)				
3. 의식주의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어려워서				
4. 가족수입이 계속 줄어서				

학 생 용 설 문 지

학생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자신과 학교생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응답 자료는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각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로서 사용되지 못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있게 응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국립 한경대학교 생활관리학과

조교수 김영희

학생의 이름 _____

_____중학교 _____학년 _____반

♣ 다음의 질문에 표시(V)하거나 답해 주세요.

1. 성별: 남자() 여자()

2. 출생년월 : 19()년 ()월

3. 출생순위:()남()녀 중 ()째

예)남자형제는 없고 여동생을 둔 여학생일 때;

(0)남 (2)녀 중 (1)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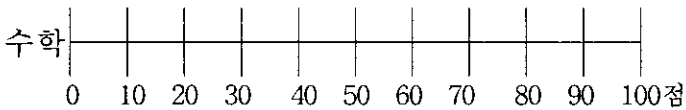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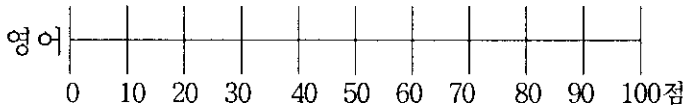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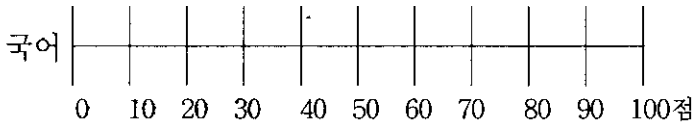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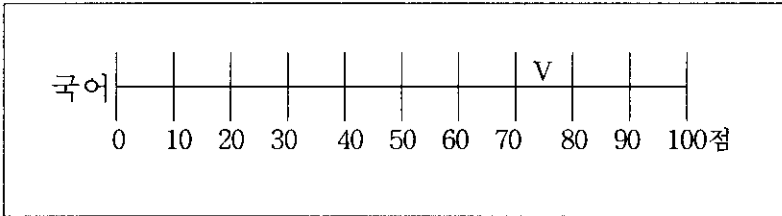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V) 해주세요.

문항내용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2.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발표한다.				
3. 선생님들이 너무 명령적이고 딱딱하다.				
4. 내 마음 속의 비밀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다.				
5. 나는 학교생활 중 수업시간이 즐겁다.				
6.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7. 선생님을 길에서 보면 반가와서 인사를 한다				
8.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9.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0.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있는 것들이 많다.				
11. 각 과목마다의 숙제가 너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친구들을 좋아한다.				
13. 선생님은 나를 귀엽게 여기신다.				
14. 나는 혼자 노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15. 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				
16.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많다.				
1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18.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이 라도 계신다.				
19. 나는 수업시간 중에 질문을 받을까바 두렵다.				
20.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21. 나는 수업시간 중 판 생각을 많이 한다.				

♣ 여러분의 지난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수학, 영어 성적점수와 전과목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균점수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V)해 주세요.

【보기】



전체적으로 볼 때

